

WOOSONG NETWORK

*WOOSONG COLLEGE JOURNAL
2019 FALL **Vol.216**

 **우송정보대학**



*CONTENTS

2019 FALL VOL.216

WOOSONG NEWS | 우송뉴스 | 04-10

- 04 '2019 국가서비스대상 대학-실무교육 특성화 부분' 2년 연속 수상
- 05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통과
대전도시철도공사와 가족기업 산학협력 협약 체결
- 07 대전도시철도 & 우송정보대학, 찾아가는 재능기부 공연 업무협약 체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와 가족기업 산학협력 협약 체결
- 08 '2019년 K-Move스쿨' 약정 체결식 개최
- 09 대전·세종·충청지역 가족기업 산학협력 협약 체결
- 10 우송정보대학, 우송대학교, 대한전기협회등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중국 하북예술직업대학과 연계교육프로그램 협약 체결
우수 가족기업과 주문식교육(EOD) 협약 체결

WOOSONG FCOUS | 우송포커스 | 12-17

- 12 애원동물학부 '2019 KKC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미용경연대회' 대상 등 수상
일본외식조리학부 일본 유명 장인 초청 특강 실시
- 13 프랑스 최고 조리학교 '듀카스 에듀케이션(Ducasse Education)'과 마스터클래스 개최
- 14 패션유통매니저과 '2019 전주 한지패션대전 코스튬 플레이 패션쇼' 참가자 전원 입상 쾌거
제9회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04



14



17



- 14 (주)준오뷰티 장학금 수여식 실시
- 15 간호학과 제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2019 LINC+ 취업캠프' 실시
- 16 대전동구청과 함께 '호텔리어'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 17 혁신지원사업단, UCC공모전 시상식 실시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 영상콘텐츠전공 2학년 전원 대전시 홍보대사 위촉

INTERVIEW & ARTICLE | 인터뷰 & 기사 | 18-44

- 20 엠블호텔 조선아
- 2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박영애
- 24 SBS예능국 문승미
- 28 일본 외식 조리학부 이시모토 준코 교수
- 32 호텔관광학부 여행항공서비스전공 김수경교수
- 36 철도전기·전자학부 송도선교수
- 38 디지털영상·비주얼디자인학부 1인미디어전공 이성한교수
- 40 해외, 막히는거 없이 편하게 다녀왔다!
- 42 나와 맞는 소울메이트는 어디있는걸까?
- 44 다른 나라에도 추석이 있을까?



22



24



28



38



32

우송정보대학 **WOOSONG NETWORK**
원고를 수시 모집합니다.
E-mail hakbosa@wsi.ac.kr
Tel 042-629-6843

WOOSONG NETWORK

발행처 우송정보대학학보사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59
발행인 정상직
주간 이성한
발행일 2019년 10월

WOOSONG NEWS

우송뉴스

EDITOT

강수현 | Kang, Su Hyun

신해지 | Shin, Hae Ji

이화연 | Lee, Hwa yeon

우송정보대학, '2019 국가서비스대상 대학-실무교육 특성화 부분' 2년 연속 수상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그랜드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9 국가서비스대상」수여식에서 대학-실무교육 특성화 부문 대상에 선정되어 상장을 수여받았다.

「2019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중앙일보에서 공동 후원하는 시상식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각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우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우송정보대학은 2018년에 이상을 수여한 이후 2년 연속 수상을 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우송정보대학은 한국대표명장을 키우는 명품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선도 '창의명장', 한국을 넘어 '세계명장', 지역발전 '산업명장' 의 인재상으로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연계 현장기술 중심 교육에 힘쓰고 있다.

1954년 실용적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법인 우송학원이 설립되었으며, 1963년에 개교한 우송정보대학은 1년 4학기 공부하는 블록식 집중수업과 명장 트레이닝 주간, 집중 현장실습 등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입해 우송정보대학만의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을 정립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실시, 산학협력 EOD(Education on Demand)학과와 학문기반의 창업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SIS(Sol International School)학



01

과는 외식조리, 제과제빵, 호텔 분야의 세계 각국의 우수한 외국인 교수진이 100%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유명 교육 기관과 공동 프로그램(프랑스 INBP, 프랑스 폴 보퀴즈대학, 호주ICHM, 일본 소비대학, 일본 치바애견플라워전문학교, 영국 본머스폴대학, 영국 버튼앤사우스더비셔 대학, 호주 TAFE SA 등)을 통해 대학 및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면서도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결과로 우송정보대학은 2015년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전국우수대학' 에, 2018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으로 평가를 받았고,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스킴사업, 노동부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사업 등에 선정되었다.

우송정보대학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공된 교육(Education)→선택하는 학습(Learning)”, “고정된 System→유연한 Platform”이라는 변화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방식 전환, 학습방식전환, 학생선택 다양성 확보, 지속가능한 학습플랫폼 구축의 전략을 수립하고 직업교육 혁신을 실행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창의적 실용교육에 충실한 명품대학을 지향하는 우송정보대학은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환경, 특성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장 빨리 '한국대표 명장' 으로 성장시켜 지역사회 핵심인재 양성 및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전문대학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F**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통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이 전문대학 기관 인증을 받아 5년간 인증 대학 지위를 유지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19년 상반기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심의에서 인증 대학 판정을 받았다.

우송정보대학은 지난 2013년 인증대학으로 판정돼 5년간 인증을 유지했으며,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로 인증을 1년 미뤄 올해 다시 통과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제는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과 대학 책무성을 높이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기관평가 인증을 통한 사회적 신뢰 부여, 직업교육의 질 보장 및 개선, 기관의 책무 증진과 직업교육 성공사례 발굴 등이 목적이다.

우송정보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기본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역량인 만큼 꾸준히 유지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F**

우송정보대학, 대전도시철도공사와 가족기업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와 가족기업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전광역시를 대표하는 지역철도기관으로써 이날 MOU를 체결한 우송정보대학과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역사회 예술발전을 위한공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대학 혁신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그룹 등 공연장소로 활용, △대전도시철도공사 오프라인 및 열차 내 홍보지원 △이용고객들과 소통을 위한 이벤트, 대회개최 등 상호협력 등에 협의하고 함께 상호 간에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F**

03



04

대전도시철도 & 우송정보대학, 찾아가는 재능기부 공연 업무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우송정보대학 우송타워에서 ‘산학협력 찾아가는 재능기부 공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도시철도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2019~2021 대전 방문의 해' 문화예술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공동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학 혁신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그룹(실용음악, 실용댄스)에게 공연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역사와 열차 내 공연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송정보대는 예술발전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철도 이용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이벤트와 공연을 개최하기로 했다.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은 “학생들이 교정 밖으로 나와 시민과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도시철도공사에 감사하고 정례적인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 향상과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의 감동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실용음악의 메카인 우송정보대학에서 도시철도, 트램, 충청권광역철도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도시철도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대표명장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

05

우송정보대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와 가족기업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우송정보대학 우송타워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도회장 김일수) 및 미래정보산업(주) 등 6개 기업과 가족기업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대전·세종·충남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공사단체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이날 MOU를 체결한 우송정보대학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구인구직 정보제공,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사항 △사회맞춤형 전문인력 양성협력 등에 협의하고 함께 상호 간에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F**

06



우송정보대학, “2019년 K-Move스쿨” 약정 체결식 개최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와 K-Move스쿨 약정 체결식을 대학본부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K-Move스쿨은 열정과 잠재력 넘치는 청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송정보대학은 2019년 K-MOVE스쿨 호주 조리사자격증 취득반에 선정되면서 글로벌명품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2019년 K-MOVE스쿨 호주 조리사자격증취득과정은 호주 조리사 3급 자격증(Certificate III in Commercial Cookery) 및 현지에서의 조리사 취업을 목표로 애들레이드에 위치한 호주 정부직업교육기관인 TAFE SA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우송정보대학은 어학, 전공실력 및 글로벌마인드를 고루 갖춘 15명의 조리전공 재학생들을 선발하여 지난 4월부터 연수과정을 운영중에 있다.

정상직 총장은 축사를 통해 “2017년, 2018년 K-Move스쿨 일본취업반선정에 이어 2019년 호주취업반까지 선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 대학이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구축을 통해 일구어 낸 탁월한 성과” 라면서 “올해 K-Move스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연수생들이 전 원 호주조리사 자격취득과 함께 100% 현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전력 지원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송정보대학은 2017년,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노동부에서주관하는 고속련일학습병행제(P-TECH)사업에도 신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바 있다. 또한 프랑스 INBP(제과제빵), 영국 Bournemouth & Pool College(뷰티), 호주 ICHM(호텔경영), 호주 TAFE SA(조리,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뷰티) 등 해외우수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해외 자격증 및 공동학위 취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07



우송정보대학, 대전·세종·충청지역 가족기업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대전·세종·충청지역 76개 우수 가족기업들과의 산학협력 협약식을 우송정보대학 우송타워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협약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 기업발굴과 새로운 직업교육 문화창달을 위하여 상호교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신교육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인력공급이 그 주요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혁신성장 동력분야 기업발굴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교육·연구·기술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사회맞춤형 전문인력 공동양성 및 상생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김양수회장 등 76개 가족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은 “이번 가족기업 산학협력 체결을 통하여 우리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각 기업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기업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대학 학생들이 최고의 “한국대표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김양수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특성화학자가 많은 우송정보대학과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게 됨으로써 대학과 현장중심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술개발로 나아가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부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우송정보대학, 우송대학교, 대한전기협회등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중갑)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우송정보대학은 우송대학교 및 대한전기협회와 '상호간의 상생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기협회와 대학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구인, 구직 정보제공 ▲사회 맞춤형 전문인력 공동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교류하고 협력한다. 이를 위해 상호간에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을 위해 지역 대학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며 "학생과 대학,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F**

우송정보대학, 우수 가족기업과 주문식교육(EOD)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과 29개 우수 가족기업들과의 주문식교육(EOD) 협약식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레전드호텔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협약은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 프로세스 주문식교육(EOD)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새로운 직업교육 문화창달을 위하여 상호교류와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신고육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인력공급이 그 주요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문식교육(EOD) 관련 학과 학생 취업 및 현장실습 등 정보교류에관한 사항 ▶산학일체형 교육·연구·봉사에 관한 협력발전

우송정보대학, 중국 하북예술직업대학과 연계교육프로그램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대학본부 5층 회의실에서 중국 하북예술직업대학과 연계교육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한 연계교육프로그램 협약은 양 대학이 글로벌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에 걸쳐 공동발전, 호혜평등의 원칙으로 체결한 협약인데 중국 하북예술직업대학 뷰티 및 영상 관련 학과 학생이 중국에서 2년의 수업을 마친후 우송정보대학으로 뷰티디자인학부 또는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로 와서 1년을 공부하면 양대학의 학위를 상호 인정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국제사고방식과 우월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우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하북예술직업대학은 1955년에 설립되어 전문대학과 중등 전문학교 단계의 예술 교육을 주력으로 발전하는 대학으로써, "특기 주도, 교육 품질우선, 실천 우선, 서비스제일"의 고등 예술직업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하북성에 유일하게 국가가 설립한 국립 종합 전문예술대학이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는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과 중국 하북예술직업대학 방언강 총장을 비롯한 양 대학 보직교수들이 참석하여 상생 발전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하반기부터 하북예술직업대학 학생들이 우송정보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F**

에 사항▶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 상호 상생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는 대전광역시관광협회 최철원 회장 등 29개 가족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은"이번 가족기업 주문식교육(EOD) 산학협력 체결을 통하여 우리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각 기업들의 발전에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기업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대학 학생들이 최고의"한국대표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대전광역시관광협회 최철원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특성화 학과가 많은 우송정보대학과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게 됨으로써 대학과 기업들이 실질적인 협약 및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부여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F**



EDITOT

강수현 | Kang, Su Hyun

신혜지 | Shin, Hae Ji

이화연 | Lee, Hwa yeon

우송정보대학 애완동물학부 '2019 KKC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미용경연대회' 대상 등 수상



우송정보대학(총장:정상직) 애완동물학부 재학생 우주영 외 14명은 일산킨텍스에서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가 주최한 '2019 KKC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미용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비롯하여 금상, 은상, 동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9 KKC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미용경연대회'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애견 미용 기술 증진과 국내외 미용전문가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주최되어, 국내외 130여명의 애견미용사들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참가하는 애견 미용대회이다.

우송정보대학 애완동물학부는 50여년 전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을 세분화하여 동물관리, 애견의료, 애견미용에 대한 명품 동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실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창업 애견미용샵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명품 동물전문가 양성 학부이다.

이형석 애완동물학부 교수는 "동물에 대한 사랑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일 진행되는 실습수업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일본의 전문 교수의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수업을 통하여 대회준비를 위한 별도의 교육 없이도 기본기와 창의력을 갖춘 학생들의 노력과 능력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한국 반려동물 미용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 **F**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 일본외식조리학부는 일본의 최고 셰프를 초청하여 제과실기 시범과 "고객을 사로잡는 서비스 매너"의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여한 특강강사는 일본 사가현 '클러르드 긴게쓰'의 셰프 다나카 마사노부(田中昌信)인데 전기공학도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전기공학계의 회사에 취직했지만 처가의 생업인 화과자 전문점을 이어받기 위해 과감히 미지의 세계 "제과의 길"로 뛰어 들어 진로를 변경하여 큰 성공을 거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히 다나카 마사노부 강사는 경쟁업체가 무수히 존재하는 후쿠오카(福岡)의 유명 제과점에서 맨바닥부터 화과자 수업을 받아 일본 현지는 물론, 먼 지방에서도 일부러 다나카씨의 케이크를 사러오는 고객도 많아 지역 경제



우송정보대학 일본외식조리학부 일본 유명 장인 초청 특강 실시

에도 일조하는 존재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날 특강에서 다나카씨는 현지의 식재료를 사용한 인기 메뉴 '호시노 말차 도브르프르마주'와 안에 푸딩을 넣어 밤페이스트로 완성한 이름하여 '몽푸딩롤'의 2종류를 시연함으로써 일본외식조리학부 재학생 100여명으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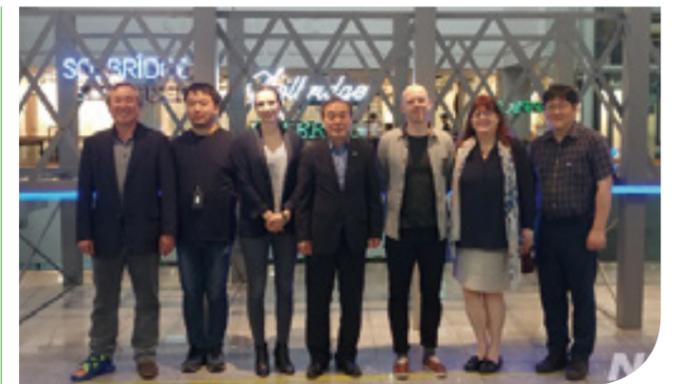
또한 이날 특강에서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접객 매너의 대가인 아카마 아쓰코(赤間淳子)씨의 접객매너 특강도 함께 진행되어 주목받았으며 은행원의 경력을 살려 정중하고 정확한 일본특유의 접대문화인 '오모테나시'의 마음을 배우는 특별강연을 해주었다.

특강을 통해 우송정보대학 일본외식조리학부의 학생들은 일본현지의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덤으로 매너까지 익힐 수 있었으며, 일본외식조리학부 이시모토 준코 학과장은 '앞으로도 일본의 유명인사를 수시로 초청하여 일본의 트렌드를 수업에 조기 반영함으로써 일본 외식문화를 주도하고 일본 취업의 길을 활짝 열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은 "60년 넘게 축적된 특성화된 교육시스템, 모든 학생들이 '한국대표 명장'으로 양성되는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협력해 교육기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기부 박람회 참가 및 다양한 학과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중고교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게 하고 자신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2018 고교생 초청 학과 전공 체험 프로그램'은 우송정보대학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일정이 공지되어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신의 고교 진로담당 교사에게 참가 신청을 하면 고교에서 꿈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F**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교내에서 프랑스 최고조리학교 '듀카스 에듀케이션(Ducasse Education)'과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다. 듀카스 에듀케이션은 현존 최고 프랑스 요리사 중 한명인 알랭 듀카스(Alan Ducasse)가 지난 1999년 설립한 요리학교이다. 알랭 듀카스 레스토랑 소속 셰프들을 위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3500명의 학생과 전문 셰프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셰프는 3일간 조리전공 학생들 앞에서 다양한 요리를 직접 시연한다. 특히 재학생들을 위해 듀카스 에듀케이션에서 고급 프랑스 요리과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6개월간의 특별과정(Superior Culinary Arts Diploma)도 개설된다. **F**



우송정보대학, 프랑스 최고 조리학교 '듀카스 에듀케이션(Ducasse Education)'과 마스터 클래스 개최



우송정보대학(총장:정상직) 패션유통매니저과 재학생들이 전북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된 '2019 전주 한지패션대전 코스튬 플레이 패션쇼'에서 최우수단체상을 비롯하여 은상 1명, 동상 3명, 특선 1명 등 본선 참가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전주, 한지로 꽃피다'라는 주제로 매년 5월에 열리고 있는 "한지 문화축제"의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19 전주 한지패션대전 코스튬 플레이 패션쇼"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주 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여 산업화 및 세계화 하고자 매해 펼쳐지고 있으며 특히, 코스튬 플레이 의상, 실용의상, 무대의상, 한복의상에서 웨딩드레스까지 의상을 통한 전주 한지의 우수성과 전통성이 관객과 디자이너에게 신소재로 다가설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대회이다. 또한, 한지라는 한국의 전통 소재를 가지고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국 전통의 미를 통해 세계화를 도모하는 유서깊은 행사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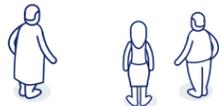
김은주 우송정보대학 패션유통매니저과 학과장은 "4차 산업혁명 도래시 미래에 각광받는 전문 패션유통매니저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한지 패션쇼에서 시작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on/off line에서 활발히 활동할 유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F**

우송정보대학 패션유통매니저과 '2019 전주 한지패션대전 코스튬 플레이 패션쇼'에서 참가자 전원 입상 쾌거



우송정보대학, 제9회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대학본부 6층 회의실에서 '제9회 우송정보대학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우송정보대학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우송정보대학 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하며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7팀이 참가했고 이 중 9팀이 최종발표에 참가했다. 우송정보대학은 중소기업부의 '산학맞춤인력 양성사업'을 2013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또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 학교 중점형 사업'을 2017년부터 실시하며 6개반 15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했고, 2019년에는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면서 11개반 280명의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F**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주)준오뷰티(대표 강윤선)로부터 장학금 5백만 원을 전달받고 뷰티디자인학부 2학년 박성희 학생의 9명의 준오혜어반 재학생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실시하였다. (주)준오뷰티는 1999년부터 산학협약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송정보대학에 매년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해 왔다.

(주)준오뷰티는 미용서비스 및 미용 프랜차이즈·경영 컨설팅 전문업체로, 프리미엄 헤어살롱 'JUNO HAIR'와 토탈 뷰티 플래그십 살롱 'Avenue JUNO'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140개의 준오혜어 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학부는 (주)준오뷰티와 20년간 산학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우수한 산학 협력의 결과로 2019년부터 LINC+ 사업 지원을 받아 더욱 활성화된 준오혜어 브랜드코스반을 운영하고 있다.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은 "우송정보대학은 (주)준오뷰티 등 많은 산학체와 맺은 산학협력의 우수한 성과의 결과로 2017년부터 교육부 주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의 사회맞춤형 학교중점형(LINC+)사업에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우송정보대학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우수 모델로 성장하며 미래를 이끄는 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F**

우송정보대학, (주)준오뷰티 장학금 수여식 실시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 간호학과는 우송도서관 소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내외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실습 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본받아 일생을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행사이다. 간호학과 2학년 남학생 54명, 여학생 61명, 총 115명은 촛불을 밝히고 '일생을 의롭게 살며 환자들에게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다 하겠다'고 서약했다.

우송정보대학 간호학과는 2010년 신설 이래 인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실무에 강한 글로벌 전문 간호인을 양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및 발전해왔으며, 2015년 한국 간호교육인증평가원으로부터 5년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우송정보대학 간호학과 7회 졸업생 75명 전원은 지난 1월에 치러진 '2019년 제59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100% 합격하였음은 물론, 2019년부터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학사 학위과정을 적용받고 있다. 실제병원 환경과 유사한 '솔 হাস피탈(Sol-Hospital)'에서의 최신식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 간호인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원 내 1:1 남학생 별도선발 등 특성화를 통해 수도권 및 대전의 대형 병원 취업, 편입, 해외간호사 면허 취득 등 꾸준한 발전을 하고 있다. **F**

우송정보대학, 간호과 제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충주 캔싱턴리조트에서 우송정보대학 LINC+ 사업단 소속 스마트제조업반 등 9개반 198명을 대상으로 'LINC+(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사업 취업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취업캠프 행사는 우송정보대학 LINC+사업(사회맞춤형 학교중점형) 참여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캠프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장예절, 면접 이미지메이킹, 협약기업체 특강, 팀프로젝트, 자존심 강화 특강 등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주)에이스텍, (주)삼신설계, (주)플리메 등 LINC+ 사업 참여 협약업체 인사 특강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매우 큰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 우송정보대학 사회맞춤형 학교중점형 사업인 LINC+ 사업은 교육부에서 2017년부터 산업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산업체 요구 맞춤형 교육과정이 우수한 44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전문대학 최

LINC+사업단 : 튜터링 경진대회와 PBL 경진대회를 개최

대 규모의 사업으로 2019년에 실시된 2017~2018년 사업운영의 2단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2019년부터 3개년간 LINC+ 사업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의 모범 대학이 되고 있다. 우송정보대학은 혁신지원사업은 물론 대학자체 주문식 교육, 산학맞춤인력양성사업, K-Move 사업 등을 통해 4차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글로벌 인재, 맞춤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최우수 전문대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100% 합격하였음은 물론, 2019년부터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학사 학위과정을 적용받고 있다. 실제병원 환경과 유사한 '솔 হাস피탈(Sol-Hospital)'에서의 최신티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 간호인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원 내 1:1 남학생 별도선발 등 특성화를 통해 수도권 및 대전의 대형 병원 취업, 편입, 해외간호사 면허 취득 등 꾸준한 발전을 하고 있다. F



우송정보대학, 대전동구청과 함께 '호텔리어' 직업 체험 프로그램 실시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대전동구청(청장 황인호)과 함께 선샤인호텔에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는야 미래의 호텔리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설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래의 호텔리어를 꿈꾸는 고등학생들과 호텔리어 전공 대학생이 멘티·멘토가 되어 지역 호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행사로,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학부 교수의 특강과 테이블 매너 체험 등으로 호텔리어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현재 대학에서 호텔관광을 전공하고 있는 멘토 언니, 오빠들이 바로 옆에서 잘 가르쳐줘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한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

10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 혁신지원사업단에서는 “피플머신” 외 15팀 68명을 대상으로 ‘2019 우송정보대학 혁신지원사업단 UCC 공모전 시상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우송정보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송+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송정보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한 각자의 자유로운 형식의 동영상 1학기동안 공모하여 금상에는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 오지서 학생팀을 필두로 총 16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금상을 수여받은 오지서 팀에서는 우송정보대학이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PBL교육을 설명하는 내용을 광고를 패러디해 재치 있게 담아내는 등 다양하고 위트있는 대학생다운 작품이 다수 선정되었으며, 수상을 받은 작품은 향후 우송정보대학 온라인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정상직 총장은 “유튜브 문화가 확산되는 요즘 우송정보대학 재학생에게서 이런듯 재치있고 우수한 작품이 나온 것을 보니 참으로 보람을 느꼈으며 향후 이러한 공모전을 자주 개최하여 재학생들의 우수한 능력과 끼를 볼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F

우송정보대학 혁신지원 사업단, UCC공모전 시상식 실시



우송정보대학, 디자인 영상콘텐츠과 영상콘텐츠전공 대전시 대학생 홍보단 위촉.



우송정보대학 영상콘텐츠전공 2학년 학생들은 대전시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학생 홍보단 발대식에서 대전시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번 제1기 대학생 홍보단은 본 대학의 디자인 영상콘텐츠학부 영상 콘텐츠전공을 비롯한 배재대, 목원대 학생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의 숨겨진 멋을 찾아 전공을 활용한 수업을 통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행사에서 위촉장을 받은 본교 학생들을 비롯한 홍보단과 대전 방문의 해 아이디어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행사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이 담긴 아이디어를 종이비행기에 적어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의 여러 대학에서 각자 다른 전공 학생이 모여 대전 방문의 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모인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청년의 아이디어와 힘으로 보다 역동적인 홍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학생홍보단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급변하는 미디어홍보환경에 적용하고, 학생들에게는 시정참여와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홍보단이 제작한 동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결과물을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F

11



ALUMNI OF THE WOOSONG

졸업생 인터뷰



2019

엠블호텔 | 조혜영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2019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박영애
DEPARTMENT OF
NURSING



2019

SBS 예능국 | 문승미
DIVISION OF
DIGITAL MEDIA · VISUAL DESIGN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엠블호텔 식음료팀 조혜영

호텔관광과(대명리조트반) 2019년 졸업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호텔관광과(대명리조트반) 18학번 조혜영입니다. 저는 현재 대명그룹 (주)호텔앤리조트 여수엠블호텔 식음료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수엠블호텔은 호남권 최초로 국제표준 5성급을 받은 특급호텔입니다.

Q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A 저는 호텔관광과 사회맞춤형 학과인 대명리조트반에 선발되어 다른 학우들과 달리 총 3회의 현장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직접 배우며 실무능력을 길렀던 것이죠. 또한 대명그룹에서 원하는 직무수업과 각종 자격증 중심의 정말 취업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하겠습니다. 즉, 취업약정을 하고 공부를 한 셈이죠.

Q 기억나는 학교생활을 얘기해 주세요.

A 한 달에 한번 이상 다녀 왔던 대명호텔/리조트 견학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셈이죠. 대명그룹에는 전국에 총 16개의 영업장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녀온 듯싶네요. 또한 학급대표를 맡으면서 지도교수님과 급우들 사이를 잘 이어주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향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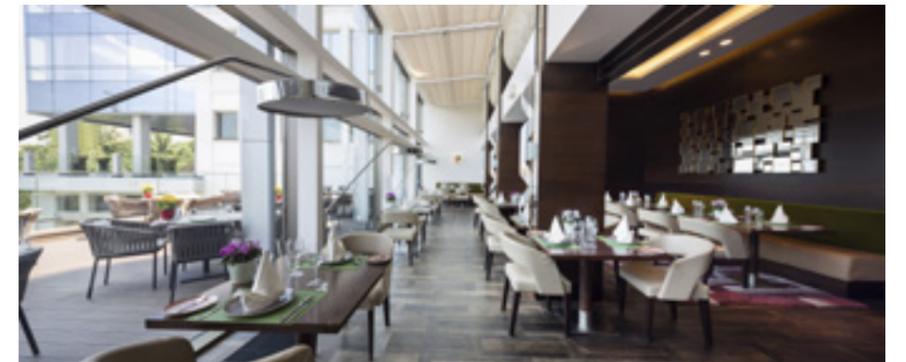
A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특급호텔에 입사하기에 현재로서는 하나라도 꼼꼼하게 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자격증, 특히 음료관련 자격증 취득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Q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과 자랑 부탁드립니다.

A EOD(Education On Demand) 프로그램이 가장 돋보입니다. 입학 전에는 '신입생이 되면 신입사원이 된다' 라는 학교홍보가 그냥 직업교육을 강조하나 싶었는데 실제 호텔관광과 학생이 되어 보니 실감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 수업시간에 배우는 다양한 지식과 호텔용어들을 잘 배워 두시면 추후 업무적응에 좋을 것 같고, 졸업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학교생활, 후회 없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도전,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텔관광과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졸업 후 진로 관광호텔, 종합 리조트 / 외식기업체 / 이벤트사, 관광공사 및 관협회 / 관광통역 및 관광안내사업체 / 4년제 대학 편입

입학 상담 장인식 교수 042)629-6258 / insik007@hanmail.net

학과 위치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E2) 503호

EDITOT

강수현 | Kang, Su Hyun



Department of Nursing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중환자실) 간호사 박영애

간호학과 2019년 졸업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입학하여 올해 2월에 졸업한 간호과 16학번 박영애라고해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입사하여 '응급중환자실'이라는 부서에서 새내기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어요.

Q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A 흔히들 간호학과는 '취업이 잘 된다' '취업이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결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간호학과 특성상, 빠르면 4월 말~5월에 취업 공고가 각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각종 실습과 과제, 다가올 국가고시와 취업까지 같이 준비하다 보니, 어떨 땐 너무 벅차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마지막 학년 때는 정말 '불태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바빴어요.

자기소개서를 5번 이상 다시 써본 것 같아요. 대부분 하는 공통질문에 관한 항목을 미리 작성해두고 각 병원의 인재상에 맞춰 조금씩 변형해가면서 지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죠. 자소서 첨삭은 학교 내에 있는 취업준비 센터를 이용해도 되고, 저는 학교 선배들한테 보여주고 첨삭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원하는 병원에 관한 정보, 면접 정보 등에 대해서 같이 얻을 수 있었죠.

Q 기억나는 학교생활을 얘기해 주세요.

A 학교생활 하면서 다양한 직책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과대표, 부과대표, 부학회장, 그리고 임원이 아닌 학생으로. 그러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그 중 한가지를 뽑자면 바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뽑을 것 같아요. 실제 임상에 나아가 실습을 하기 전에 하는 ceremony죠.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면서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어

떠한 간호사가 되고, 어떻게 실습을 해 나아갈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생일, 졸업식 이후로 가장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았던 행사이기도 했죠. 그 날은 선배, 후배 그리고 교수님까지 모두가 축하를 해주는 자리니까요.

Q 향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올 해는 신규간호사로서 부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간호학 학사를 준비하여 석사과정까지는 도전해볼 생각이죠. 어느정도 임상에서 경력을 쌓고, 임상이 아닌 다른 직종에 도전을 하여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또한 기회가 된다면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Q 우송정보대학 간호학과 자랑 부탁드립니다.

A 타 학교들과 차별화되는 저희 학과만의 특징이라면 전공과목부터 교양과목까지 외국인 교수님과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교수님과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긴 했지만, 실제로 마주치게 되니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당황스러움은 잠시 뿐이었고, 외국인 교수님과 수업하면서 전공 실력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회화 능력까지 함께 겸비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죠. 요즘 외국에서도 한국으로 치료를 위해 오는 경우가 많아 졌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되었죠. 또한 전공과목을 외국인 교수님께 배워서 임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더욱 편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simulation lab이라는 과목을 통해 실제 사람과 거의 동일한 모형을 통해 상황에 맞는 간호중재를 수행하고, 직접 기록을 해봄으로써 책으로만 보던 임상과 실제 임상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었죠. 특히 교수님들의 실감나는 연기가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역할을 해주었어요 ㅎㅎ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 우송정보대학교 간호학과에 온 여러분들이 너무 환영해요. 좋은 교수님들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간호사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습득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에 한번 뿐인 20대 초반을 너무 공부 혹은 과제로만 채우지 않길 바라요. 공부를 하는 것도, 과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인생에 20대 초반은 한번 뿐이더라구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동기들과 그리고 선배, 후배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서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생각해봐도 후회 없는 20대를 보내길 바라요..!

끝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번쯤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섭고 버거워서 그만두고 싶은 시기가 올꺼예요. 저도 그랬고요.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더 빨리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표니까, 너무 힘들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첫 대학 생활, 간호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간호학과(4년제) Department of Nursing

졸업 후 진로 임상 간호사/ 간호직 · 보건직/ 공무원/ 산업 간호사/ 전문 간호사/ 조산사/ 사례관리사/ 보험심사/ 간호 장교/ 미국 등 해외 취업

관련 문의 정영희 교수 042)629-6404 / jeongyh@wsi.ac.kr

학과위치 서캠퍼스 정보과학관(W5) 518호

EDITOT

신혜지 | Shin, Hae Jii



Division of Broadcasting

SBS(서울) 예능국 조연출 문승미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 (영상콘텐츠전공)
2019년졸업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정보대학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에서 영상콘텐츠를 전공한 17학번 졸업생 문승미 입니다. 저는 목동SBS 예능국에서 편집 및 촬영 보조, 자료 백업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고 지금은 상암MBC에서 다큐멘터리, 예능,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집과 종편 담당 조연출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취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 하셨나요?

A 다행히도 저는 릴 영상을 보여줄 필요 없이 취업했어요. 그 전에는 이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저를 잘 표현하는 것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서 포트폴리오. 즉, 릴 영상을 만드는 할 동안 그동안 만들었던 과제들을 다 같이 만들고 제 마음대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남을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영상에 나오는 것도 좋아해서 제 영상에는 제가 많이 나와요. 그게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장난을 쳐도 어색하지 않게 표현이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갈피를 못 잡을 땐 교수님께 많이 질문하세요. 쓴소리를 하셔도 여러분이 잘되길 도와주려고 계시는 거니까요. 만들고 읽고 반복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사례 영상도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릴 영상보다 더 중요한 자기소개서 준비가 힘이 들 거예요. 저는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여러 공모전에도 참여했고, 대외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학교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특강 도움도 많이 받았고. 교내 취업 준비센터에 도움도 받았고, 교수님께도 많이 물어보고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덕에 제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Q 기억에 남는 학교생활 이야기를 해주세요.

A 너무 많은데.. 사소하게는 등굣길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언덕길을 올라갔던 거나, 밤새 편집을 끝내고 렌더링 돌리면서 무거운 노트북을 한 손으로 들고는 힘들게 등교했던 일도 있었고요.

크게는 공모전을 하면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던 기억. 영어 경진대회 참가했던 기억, 3개의 아르바이트와 실습, 교내 학보사, 창업 동아리 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고,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학년 말 팀 과제로 뮤직비디오 제작했던 일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어 와' 라는 과제였는데, 처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상 주제가 같은 친구들과 공모전을 위한 영상이 아닌 진짜 내가 만들고 싶었던 영상을 만들 좋은 기회였어요. 서울, 대전, 대전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는 내내 너무 재미있었고, 각자 맡은 분야에 책임감을 느끼고 편집하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다시 깨닫게 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 영상을 전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저의 초심을 되찾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Q 향후계획이나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금 제 현실적인 목표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잘 다니고, 경력을 쌓으면 KBS 예능국 편집 감독으로 이직하는 게 제1차 목표예요. 저는 목표와 꿈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잘하는걸 직업으로 해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덜 힘들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제 꿈은 뮤직비디오 감독이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멋진 이야기를 가진 영상을 얻고 싶다는 생각으로 영상 과에 왔던 거였고요, 지금은 나름 스토리보드도 작성하면서 차근차근 연습하고 있어요.

Q 우송정보대학 영상콘텐츠학과 자랑 부탁드립니다.

A 디자인 영상콘텐츠학부는 시각, 영상, 귀금속 총 세 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부예요. 1학년 1학기에는 공통과목을 공부하면서 전공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2학기부터는 전공을 살려서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

어요.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요. 또, 공모전과 자격증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공부해서 자격증을 금방 취득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 영상 실력도 금방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8학번 분들과 신입생분들의 실력도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솔직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 1학년 1학기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노세요. 영상도 많이 찍어보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요. 저는 야작을 하다가도 친구들과 즉흥적으로 드라이브도 다녔고, 여행도 갔어요. 근데도 더 못 놀아보고 20살을 보냈던 것이 후회되더라고요. 하지만 학교는 잘 다녀야 해요. 가장 중요해요. 중간에 군대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땐 그 과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더 놀을 걸 그랬다.' 이런 이야기 해요. 학교 다시 다니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추억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취업에 걱정이 많을 텐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편집을 전공으로 컷 편집이나, 예고편 등을 만들며 방송국 취업이 목표인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파이널 컷 프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는 CG 그래픽, 유튜브 편집자를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이펙트를 중심으로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고요, 포토샵, 일러스트는 기본입니다. 카메라 감독이 꿈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편집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방금 촬영한 것을 사용하겠구나, 버리겠구나, 가보여요. 총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체력이예요. 영상 작업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3분짜리 영상 만드는 과제도 밤샘작업 하는

데, 방송은 6시간 촬영하고, 감독님들이 3일 밤을 새워서 1시간 30분의 시사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사, 심의, 회의, 편성시간에 맞춰 1시간 영상을 만들어 내고 방송에 내보낼 준비를 하고요. 또 미팅하고, 촬영하고, 시사하고에 반복이예요. 촬영 팀을 보자면 스튜디오 촬영이나 예능촬영은 짧으면 3시간, 길게는 하루가 넘어가요, 드라마 촬영은 기본 일주일에 3일 야외 촬영을 두 달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건강 꼭 잘 챙겨야 해요!! 면접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이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사전에 꼭 조사해서 앉아 계신 분들 보면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랑 잘 엮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거예요. 만약 내가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미숙하다 해도 일하면서 다 다시 알려 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영상콘텐츠학부 학생들 화이팅!



디자인 · 영상콘텐츠학부 Division of Broadcasting

졸업 후 진로 MBC, KBS, SBS 등 공중파 방송국/ 각종 케이블 방송국/ 기업홍보부/ 광고홍보대행사/ 인터넷신문사/ 인터넷방송국/ 원격교육기관/ 미디어교육기관/ 영상프로덕션 창업/ 디지털 저널리스트/ 디지털 프로듀서/ 포스트 프로덕션/ 온라인 영상제작회사/ web서비스 회사/ 영화사/ 영상특수효과회사/ 영화특수효과회사/ 디지털 콘텐츠분야 창업/ 대기업 사내방송/ 인터넷 쇼핑몰 영상제작 전문가 등

관련 문의 이성환 교수 042)629-6412 / saint@wsi.ac.kr

학과위치 동캠퍼스 테크노디자인센터(E1) 811호

EDITOT

이화연 | Lee, Hwa yeon

학과소개

- 28** 일본 외식 조리학부
Division of Japanese Culinary Arts
- 32** 호텔관광학부 | 여행항공서비스전공
Division of Hotel & Tourism
- 36** 철도전기·전자학부 | 전자전공 / 철도전기전공
Division of Railway Electricity & Electronics
- 38** 디지털영상·비주얼디자인학부 | 1인미디어전공
Division of Digital Media · Visual Design | Memeida Design Major



EDITOT

강수현 | Kang, Su Hyun

신혜지 | Shin, Hae Ji

이화연 | Lee, Hwa yeon



이시모토 준코 / 교수

Division of Japanese Culinary Arts

일본 외식 조리학부

이시모토 준코 / 교수



일본 외식 조리학부 소개

일본외식조리학부는 일본조리전공과 제과·제빵전공으로 나뉩니다. 일본요리는 이제 세계에서 고급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요리는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일본외식조리학부 일본조리전공 학생들은 일본인교수로부터 정통일본요리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일본외식조리학부 제과제빵 전공에서는, 아시아의 식문화·기호·미각에 영향을 받아 진화한 아시아인 취향의 메뉴를 주로 지도하고 있다.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빵이 주식이지만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빵이 오랫동안 간식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구 아시아의 제과제빵과는 약간 다른 전개를 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과자 빵·조리 빵의 발전과 진화, 디저트의 사이즈·디자인은 서양과는 많이 다르다. 그를 위해, 일본의 호텔 제과장·제빵점 경영자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일본인 교수로 구성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외식 조리학부의 특징과 장점

지금의 경쟁사회에서는 어학력만·기술력만으로는 이겨내기 어렵다. 이에 대응하는 일본 외식 조리학부는 실기 실습과 일본어 실력 습득을 중심으로 어학력(특히 일본어)과 기술력의 쌍방을 기르는 학부로서 탄생하였다.

일본어 원어민에 의한 실습수업으로 일상적으로 일본어를 듣고 일본어에 익숙해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인교수의 문법수업을 통해 일본어 수업에서 일본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일본어 실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2학년 2학기에는 일본 현지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일본에서의 취업에 대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국내 제과 제빵 기업 · 국내 음식 관계 기업에 취업. 또한 일본에서의 현장 실습 종료 학생은 현장 실습 중에 일본 내에서 취업 가능한 자격을 취득하면, 일본 내의 호텔 · 제과 제빵업체 · 일식 전문점에서의 취직이 가능하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

시간은 기다려주지도 않으며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영원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지금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보낸 시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

예비 신입생을 위한 한마디

4년제 대학보다 2년제 대학은 시간이 짧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배우는 것에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응축된 알찬 대학생활을 맞이하기 바란다.

| 전공 관련 질문

일본의 외식 조리 학부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은 있습니까?

- 일본어 실력이 있다고 자신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본어를 배우고 입학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 일본조리 전공과 제과제빵 전공으로 나뉘므로 자신의 전공에 맞춰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두고 수업에 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추천하는 일본 요리와 과자. 그 이유.

추천하는 일본음식: 오조니(일본식 떡국)

'오조니'는 한국의 "밥국과 마찬가지로 설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일본열도는 세로로 길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국물을 먹는 방법이 다르다. 안에 넣는 떡의 모양이나 도구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 재료에도 각각의 의미나 소원이 담겨져 있어 지역의 식문화 · 역사를 배우기에 중요한 음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절이나 축제에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

추천하는 과자; 화과자 '네리키리'

착색한 팔소를 겉으로 하여 여러 모양을 만든 일본식과자로서 여분의 장식을 잘라 버리고 간결하게 표현한 과자. 일본인의 미의식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깊이가 있다.

우수 정보 대학 일본 외식 조리학부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 국내 유일의 일본에 특화된 학부
- 일본의 능력과 제과 제빵 혹은 일본 조리 기술 모두를 습득하는 유일한 학부
- 블록제(3주에서 1개 과목을 이수)로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
- 일본 기업체와 안정적인 제휴로 일본에서 현장 실습과 일본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다.



일본외식조리학부 Division of Japanese Culinary Arts

졸업 후 진로 호텔/레스토랑/대형 제과점 제과사 및 제빵사, 제과제빵 관련 교육기관 강사, 제과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신제품 개발, 전문기자, 식자재 유통회사, 케이크디자이너, 설탕 공예사, 초콜릿 공예사, 외식산업체, 프랜차이즈회사, 식품 연구소, 관련 컨설팅회사, 케이터링 업체, 창업, 호텔전문식당 조리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음료관련 연구소, 요리전문가 및 교육기관 강사, 4년제 대학 편입 및 유학, 해외인턴십 및 연수

관련 문의 최영수교수 / 042)629-6419 / ysche@wsi.ac.kr
학과위치 서캠퍼스 커리너리센터(W14) 401호 일본외식조리학부



Division of Hotel & Tourism

호텔관광학부 | 여행항공서비스전공



김수경 교수

전공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여행항공서비스전공은 2020년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교육부문과 취업부문, 산학협력부문으로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학생/교육부문으로는 여행항공서비스 분야에 꼭 필요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고, 여행사, 항공사, 5성급 호텔 취업에 필요한 사회맞춤형 교과목 설치로 여행항공서비스분야의 집중교육 및 외국어능력 극대화(원어민 1명에 학생 5명 수업 진행 예정)를 통한 글로벌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현장실습과정 이수 및 교육부 사회맞춤형(LINC+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맞춤형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둘째, 취업부문으로는 여행코디네이터, Tour Conductor, 통역가이드, 항공예약발권전문가, 항공서비스전문가, 오페라시스템(호텔 객실예약시스템)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분야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40년 전통의 여행/항공/호텔학과 졸업생과의 멘토링 시스템 운영으로 전공분야 취업을 도모하고, 여행사/항공사/호텔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학생 1인당 1기업 연계시스템을 통한 취업을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셋째, 산학협력부문으로는 40년 전통의 동문기업(여행사, 항공사, 호텔 등)과 연계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행사, 항공사, 5성급 호텔 근무 겸임교수님과의 연계교육 및 산학협력도 강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 최고의 여행사, 항공사, 호텔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1인 1기업 연계교육을 목표로 추진한다.

졸업 후 진로?

학생 1인당 1기업 실현을 목적으로 한 FSC(Full Service Carrier)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LCC(Low Cost Carrier) 항공사(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사천항공 등) 및 대형 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등), 5성급 호텔(롯데호텔, 신라호텔, 하이얏트호텔, 힐튼호텔, 웨라튼워커히호텔, 노보텔호텔기업) 프론트오피스매니저 취업 및 국내외 4년제 대학 편입 등을 목표로 모든 교수님의 취업사정관화로 학생들의 취업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예비신입생을 위한 한마디?

전국의 항공서비스과, 항공운항과 등은 모두 입시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여행항공서비스전공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타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항공서비스인력에 맞는 신체조건, 어학능력, 수학적능력, 인성 등을 체크하여 우수한 항공서비스인재를 찾기 위함이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우수 학생을 유치하여 교육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 여행항공서비스전공은 어학능력, 수학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어학능력과 수학적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본교육이고 교육철학이라고 자부한다. 신체조건(ex. 스튜어디스)이 안되면 신체조건이 가능한 직업(ex. 공항 지상직)으로 유도하고 학생에게 맞추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여행항공서비스전공은 넘치는 교육은 아니어도 채움의 미학이 넘치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관광학과 4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40년 동안 관광학과를 거쳐 간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제 무한 인적네트워크가 내장된 새로운 여행항공서비스전공이 예비신입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한다. 예비신입생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하고자하는 의지와 열정만을 가슴에 담고 오길 바란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비상하는 여행항공서비스전공은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학과로의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교육철학이고 교육이념이 될 것이다.



교수님에게 여행이란?

베네치아의 흔들리는 배, 초저녁 갠시스 강가, 산마르코 광장의 아침, 낮선 장소, 낮선 공기, 낮선 사람들 익숙한 건 오직 자기 자신뿐! 여행을 시작하기 전 먼저 그곳을 떠났던 사람들의 충고는 늘 이렇다. 무엇을 봐야한다, 무엇을 먹어야한다, 무엇을 남겨야 한다고...

‘무엇을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떻게 온 여행인데 다시는 못 올 거야!’ 라고 꼭 짜여진 계획 속에서 행진 또 행진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 여행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아름답기만 했던 골목 사이에서 길을 잃거나, 색달랐던 음식이 그저 입에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진정한 여행자’ 라면 해서는 안 될 질문을 던지고 만다. 난 왜 여기로 떠나 온 걸까? 무엇을 얻자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꼭 이렇게 멀리 떠나야만 했을까? 그러자 여행의 흥분은 갑자기 사라지고 낮선 장소에서 이질적으로 서 있는 이방인을 발견하게 된다. 떠나기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익숙한 자기 자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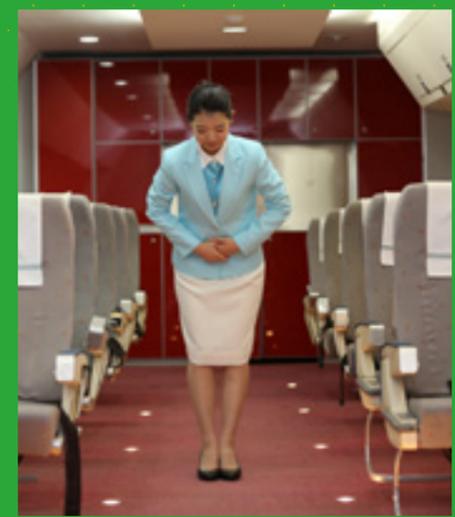
하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건 정말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낯선 질문이고, 항상 맴돌았지만 차마 꺼내기 힘든 한마디였던 것이다.

너는 누구니?

그러자 그 짧은 순간 하루가 일년, 한 달이 천년 같은 이상한 시간의 속도를 경험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자신 속으로의 여행을 발견하게 된다. 기차의 덜컹거림, 볼을 스치는 차가운 기운, 강가에서 타던 행나, 그리고 거리 약사의 어떤 연주곡 등등이 남김없이 가슴속으로 들어와 사진으로는 남길 수 없는 기억이 되고 마는 것이 나의 여행이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의 여행은 언제나 「그저 두려움 반, 설렘 반」이 되는 것이다.

추천하는 여행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여행은 「그저 두려움 반, 설렘 반」이다. 나의 여행지는 그렇다보니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향하는 것이 여행지이다. 아들의 유학시절 처음으로 1년 넘게 떨어져 지냈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 뉴질랜드로 향하던 나의 모습이 나의 여행지였고, 나의 병간호를 위해 귀국길에 오른 아내를 마중하기 위해 공항으로 길 떠나던 나의 모습이 나의 여행지였다. 오래전 군대간 아들에게 안부의 편지를 쓰던 어머니를 뵙기 위해 휴가증을 받아들고 떠나던 나의 모습이 나의 여행지였다. 그렇듯 내가 추천하고자 하는 여행지는 추천받고자 하는 우리 여행자들의 가슴속에 존재하는 모든 곳이 추천 여행지가 될 것이다. 다시 가보고픈 추억의 여행지로 떠나는 한 곳 한 곳이 모두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의 여행지가 될 것이다. 그 곳이 두려움 반, 설렘 반의 여행지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호텔관광학부 여행항공서비스 전공 Division of Hotel & Tourism

졸업 후 진로 학생 1인당 1기업 실현을 목적으로 한 FSC(Full Service Carrier)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 LCC(Low Cost Carrier) 항공사(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사천항공 등) 및 대형 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등) 취업 및 국내외 4년제 대학 편입

관련 문의 김수경교수 042-629-6257
학과위치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E-2) 503호

Division of Railway Electricity & Electronics

철도전기·전자학부 전자전공 | 철도전기전공

송도선 교수

전공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4차산업 사회에서 자동화, 지능화, 첨단화되어가고 있는 전기 및 전자산업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부내에 철도전기전공과 전자정보전공으로 전문화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능력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합니다.

학과의 특징이나 장점?

2개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도전기전공은 철도전기 신호 열차제어 및 한국전력기술인 양성 교육에 목표를 두고있습니다.

전자정보전공은 차세대로봇 및 드론 기술, 반도체 및 LCD 기술, 디지털 기반 기술, 게임 테크닉 전문 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지하철 공사 등 철도관련 산업체, 한국전력 등 전기 관련 산업체 취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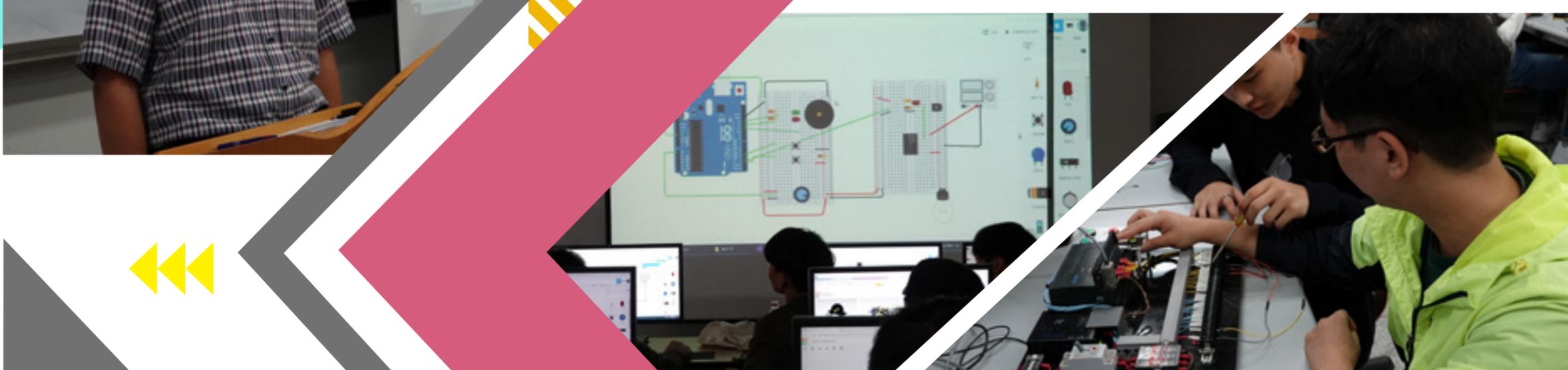
- 삼성, LG, SK, KBS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전자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스타디그룹과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개발하는 전공 능력향상과 성실하고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통하여 미래의 철도전기및 전자분야의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예비 학생들을 위한 한 마디 해주세요.

철도전기분야나 4차산업분야에 미래를 투자할 학생들은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중요하니 누구나 지원하길 기원합니다.



철도전기·전자학부 Division of Railway Electricity Electronics

졸업 후 진로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공기업,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협력업체

관련 문의 송도선 교수 042)629-6381 / song@wsi.ac.kr

학과위치 동캠퍼스 테크노디자인센터(E1) 505호

Division of Digital Media - Visual Design / Memedia Design Major

디지털영상 · 비주얼디자인학부 1인미디어전공



전공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1인미디어전공은 유튜버 등 1인미디어 콘텐츠 제작자(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예비 크리에이터를 위하여 자신만의 방송국을 꾸미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학과에서는 유명(전문) 크리에이터 초빙을 통한 제작 및 운영 노하우 전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및 1인미디어 전용 스튜디오 지원, 콘텐츠 기획, 영상 촬영과 편집, MCN(Multi Channel Network), 미디어콘텐츠 관련 이론, 기획, 창작실무 등, 운영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그야말로 전문적인 1인방송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과의 특징이나 장점?

저희 학과는 나만의 방송국과 브랜딩을 위한 미디어 전문가 양성, 전 학생의 1인 방송화를 통한 실무형 전문가 양성, 전 학생의 공모전 참여를 통한 맞춤형 전문가 양성,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컴퓨터 기초 지식 확립(그래픽, UI/UX, 마케팅 등), 방송,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토털 영상 콘텐츠 제작전문가를 양성합니다. 1인미디어제작 전문가와 방송영상콘텐츠제작 전문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학과입니다.

졸업 후 진로?

저희 학과는 학교 졸업 후 크리에이터와 방송영상콘텐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여 공중파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 미디어 크리에이터, 콘텐츠



이성한 교수

기획(광고,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기획), 홍보(미디어, SNS) 마케팅, MCN 및 일반 기획사, 1인미디어 기업(MCN) 창업,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업체, 영상제작 프로덕션, 팟캐스트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비신입생을 위한 한마디?

스마트폰이 중심인 세상이며, 내 신체의 일부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상인 '포노 사피엔스(Photo Sapience)'의 세상입니다. 동영상들을 많이 시청할 수 밖에 없다면 상식을 키울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 활용을 위한 교육 동영상, 시간을 채우기 위한 동영상이 아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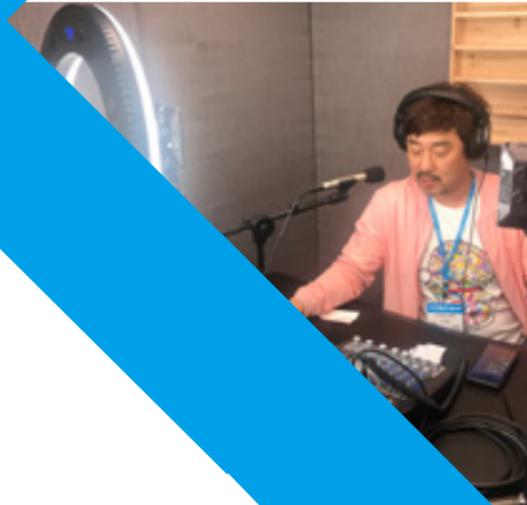
추천하는 영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https://youtu.be/VULRSpF49Yk>

-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056회.

“포노 사피엔스가 만드는 일상 혁명-성균관대학교 최재봉교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증가와 빠른 이동통신의 등장으로 인해 동영상 콘텐츠와 플랫폼들을 통하여 많은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과 세계의 스마트폰 사용자 약 40억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생각의 탄생 등, 스마트폰으로 변화가는 다양한 경제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1인미디어전공 Memedia Design Major

졸업 후 진로 미디어크리에이터, 콘텐츠기획(광고,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기획), 홍보(미디어, SNS) 마케팅, MCN 및 일반 기획사, 1인미디어기업(MCN) 창업, 미디어콘텐츠제작업체, 프로덕션, 팟캐스터 등

관련 문의 이성한교수 : 042)629-6412 / saint@wsi.ac.kr

학과위치 동캠퍼스 테크노디자인센터(E1) 811호

해외, 막히는거 없이

편하게 다녀오셨!

과제가 태풍처럼 휩쓸고, 시험이 비바람처럼 몰아치던 학기! 힘들고 지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맞이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국내 여행도 많이 가겠지만 졸업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할 해외 졸업 전이나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는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오실 것 같은데요. 해외에 가면, 우선 언어의 장벽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것은 해외여행 필수 영어 회화 4가지 상황별 표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하지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회화 표현들을 살펴볼까요?



공항에서

여행의 시작! 해외에 도착을 했는데 교통편도 어렵고, 수하물도 찾지 못했어요. 가장 난감한 상황에서 한 문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 공항에서 숙소 교통편을 이용할 시 >

- Where can I take an airport bus to OOO Hotel?
- OOO호텔로 가는 공항버스는 어디서 탑니까?
- Where can I take a taxi downtown?
-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는 어디서 타나요?

< 수하물 분실 시 >

- My luggage is missing.
- 제 짐이 없어졌습니다.
- Where is the lost and found?
- 분실물 센터는 어디인가요?



호텔에서

자! 이제 공항에서의 상황을 해결하고 호텔로 왔습니다! 호텔은 편하게 쉴 수 있는 호화로운 쉼터인데요! 이러한 쉼터에는 체크인, 체크아웃, 그리고 요청 사안을 전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 호텔 체크인/체크아웃 시 >

- I'd like to check in.
- 체크인하고 싶습니다.
-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 How much is tit a night?
- 하룻밤 가격이 얼마인가요?
- I'd like to check out.
- 체크아웃하고 싶습니다.

< 호텔 서비스 요청 시 >

- My room needs to be cleaned, please.
- 제 방을 청소해 주세요.
- I'd like to change rooms, please.
- 다른 방으로 변경해 주세요.
- Could I haver more towels?
- 수건을 더 줄 수 있을까요?



레스토랑에서

실컷 구경하고 나니 출출해서 시간을 봅니다. 2시?!?! 배고플 만한 시간인데요. 주변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점을 발견해서 바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자리에 앉았지만 어떻게 주문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맞닥뜨렸네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회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메뉴를 주문할 때 >

- What do you recommend here?
-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예요?
- Give us a little more time.
- 좀 있다가 주문하겠습니다.
- We'd like to order, please.
- 여기 주문받아 주십시오.

< 식사 후 계산할 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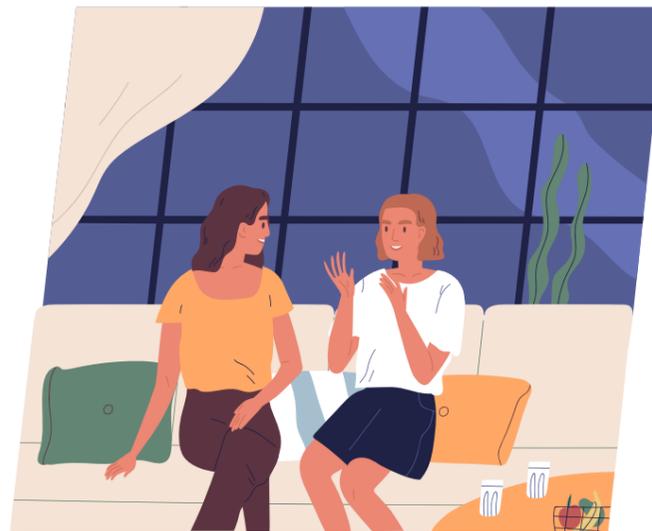
- Can I have the bill, please?
- 계산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 I'll pay.
- 계산하겠습니다.
- I think the bill is wrong.
-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길 찾을 때



- 호텔에 짐을 풀고, 길거리로 나와 이제 여행을 즐길 때가 되었습니다! 보통 길을 찾을 때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도를 찾아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회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ow long does it take by foot?
-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 Where am I on the map?
- 여기가 이 지도에서 어디입니까?
- Where are the public toilets?
-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근한 상대방에게 칭찬하기



해외 친구를 사귀고 싶거나, 혹은 이상으로 호기심이 있거나, 또래의 착한 사람과 대화를 이끄고 싶을 때 상대방을 칭찬하는 회화를 준비했습니다!

You look attractive!

- 당신 정말 잘생겼네요! (매력적 이시네요!)

- I enjoy spending time with you.
- 그대와 함께 있으면 재미있어요.

You seem like a nice person.

-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I like the way you smile.

- 저는 당신의 웃는 모습이 좋아요.



이번 방학엔 간단 회화로 편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고,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영어 회화를 보시면서 다들 유용하게 쓰시고, 행복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DITOT
강수현 | Kang, Su Hyun

찬바람이 스멀스멀 불어오는 이 계절.
내 마음에도 벽지에 구멍 뚫린 듯 슬슬 찬바람이 들어오네.
지금 사랑을 찾고 있다면?

나와 맞는 소울메이트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 글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랑은 중독... overdose

내가 중학생 때 우리학교는 남녀 공학이었다.

나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공부를 즐기진 않았다.

친구들과 우글우글 뭉쳐 다니며 놀고 급식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달까?

그러다 질풍노도의 중2병을 맞게 되었고, 나는 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창틀 청소를 하던 중 창밖을 보는데 어떤 남자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헤드 락에 걸려 넘어지던 모습이 왠지 귀엽고 웃겼다. 그 뒤로 나도 모르게 계속 눈길이 갔다.

스토커처럼 뒤를 밟아 동선을 파악했고, 그 후 그 애를 따라 매일 PC방에 발도장을 찍었다.

PC방에서 자리를 고르려 지나가는 그 애를 몰래 쳐다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PC방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 게임을 시작했다. 조금씩 하다 보니 어느새 게임에 매료되어 있는 나를 발견했다.

점점 올라가는 게임 속 레벨과는 반대로 성격은 내리막길로 향했다.

물론 짝사랑도 실패로 끝났고.

어린 중학생 시절의 에피소드이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누구 위한 짝사랑이었나 싶다.

그 때에 나의 성격, 나의 시간에 신경을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모쏨(모태솔로) 인생

“연애는 잘생기고 착하고 스윗한 정해인 같은 남자랑 할거야!”

20년 인생 모태솔로였던 나는 짝사랑 전문, 로맨스 소설 전문가였다.

하지만 예상도 못하게 찾아오는 건 사고와 사랑이라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 20살의 어느 날, 어찌다 학교선배와 데이트를 하게 됐다. 그 후 어느 새가 보니 사귀고 있었다.

상상만 하던 소설 속, 영화 속의 일들이 현실이 되니 하루하루가 특별한 느낌이었고 즐거웠다.

그렇게 좋은 날만 있다면 좋았겠지만 몇 개월 뒤 남자친구는 군 입대를 했다. 주변에서는 헤어지라고 말들이 많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첫 연애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첫 휴가 때 남자친구는 나보고 살이 많이 썩 것 같다며 뱃살을 잡으며 장난을 쳤다.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전화통화를 하면 일상의 반복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은근슬쩍 운동안하냐는 남자친구의 물음이 들려왔다. 처음엔 권유였지만 점점 그 말이 운동하라는 압박으로 들릴 때쯤 나는 못이기는 척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어찌됐든 열심히 운동을 했고 목표 몸무게에 도달했다.

남자친구는 기뻐했고 남자친구가 좋아하니깐 나도 좋을 줄 알았다.

그 후 남자친구는 무슨 퀘스트를 주는 NPC마냥 새로운 미션(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들이밀었고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았다.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결과는 헤어짐이었다. 그 후 군인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 물론, 군인이라는 신분은 잘못이 없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을뿐더러 해줘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 뭐먹지?

2명 이상의 여자친구들과 모이면 항상 고민되고 결정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다.

“우리 오늘 뭐먹지?”

주도적인 친구가 이 말을 꺼내면 그때부터 배려 배틀이 시작된다.

특히 평소 배려가 많은 친구들의 모임이라면 메뉴를 결정하는데 한시간이상 이 소요되기도 한다.

“너는 뭐 먹고 싶어?”

“너는?”

“난 아무거나 괜찮아.”

“나도..”

이렇게 되면 상황이 심히 복잡하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먹고 싶은 건 딱히 없지만 내가 먹기 싫은 것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사실 어제 매운 음식을 먹어서 설사병에 걸려서 매운 건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한 친구가 매운 떡볶이 먹으러 가져한다. 또한 다른 친구들이 동조하는 분위기라면 난 어느새 나도 괜찮다고 하며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긴 한데 친구들의 의견에 따른다.

차마 그것을 먹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고나 할까?

타인의 의견에 나의 바람은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넣어두게 되는 안타까운 배려.

그럴 때 나는 왜 그랬을까?

완벽한 소울메이트는 없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 받기 위해서.

그것에 있어 나의 감정은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조금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또한 이제는 내려놓고 내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남들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을 인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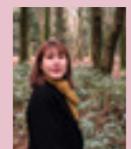
우린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누구에게나 사랑 받을 수 없다.

내가 착하게만 굴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타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려하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돌려보면 어떨까?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인생은 개쌍 마이웨이.

또한 나를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인연은 불시에 찾아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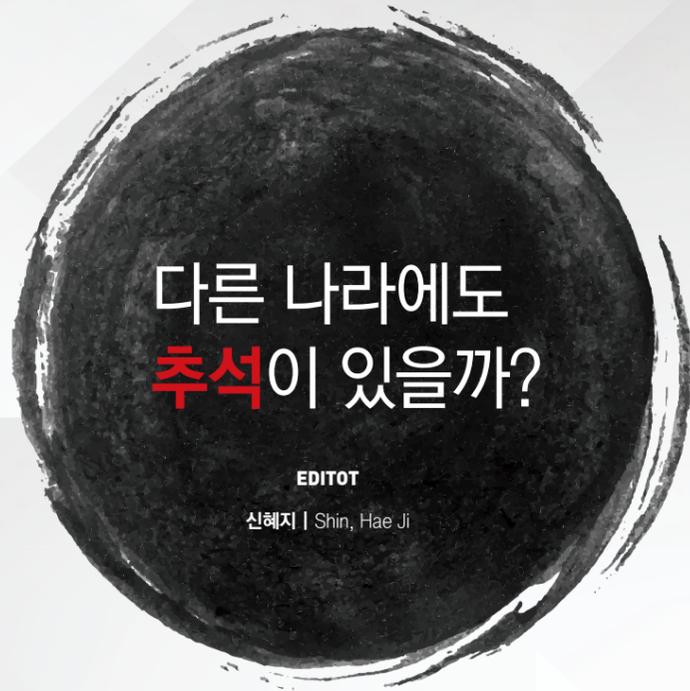


EDITOT
이화연 | Lee, Hwa yeon



중국의 '중추절'

우리나라의 추석과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해외 명절로는 중국의 '중추절'을 꼽을 수 있어. 날짜도 음력 8월 15일로 똑같아. 중추 또는 십오야로 부르기도 하는데, 한 해의 중간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때의 달은 밝고 둥글어서 달 보기를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기고 있어. 둥근 보름달 모양에는 가정의 원만함과 단란함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 또 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는데 이는 석월이라고 해. 명절 음식으로는 '보름달 모양의 떡'이란 뜻의 월병을 만들어 먹거나 사서 친척과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줘.



다른 나라에도 추석이 있을까?

EDITOT

신혜지 | Shin, Hae Ji

순수 우리말로 '한가위'로 불리는 추석.

추석은 정월대보름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야.

음력 8월 15일로 수확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그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고 이듬해 풍농을 기리는 데 의미가 있는 날이지.

또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먹고 차례를 지내는 풍습을 지니고 있어.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통 명절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알아보자!



베트남 '쯩투'

베트남도 음력 8월 15일에 중추절을 보내. '쯩투'는 한자 중추라는 뜻으로 우리의 추석처럼 큰 명절은 아니야. 그래서인지 지정된 국가 공휴일이 아니고 어린이를 위한 날에 더 가까워. 부모들은 평소 바빠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의미로 아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전통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지. 이는 베트남의 독립을 이끈 호찌민 주석이 중추절 행사에서 연설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 연설 내용 안에는 전쟁 때문에 가정과 사회의 외면을 받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 이날이 되면 아이들은 과자와 사탕을 마음껏 먹고 강통에 불씨를 집어넣어 쥐불놀이를 하고 연을 날리기도 해. 부모님들과 가면, 용춤, 연등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찹쌀로 만든 둥근 모양의 빵인 쩡투를 먹기도 해.



캄보디아의 '프츨뵐'

캄보디아에서는 음력 8월 16일부터 그믐날까지 15일간 전통 명절인 '프츨뵐' 행사가 진행돼. '프츨'은 모임이란 뜻이고 '뵐'은 쌀로 만든 주먹밥을 뜻해. 이 시기는 보름달이 떴다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시기야.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때 지옥문이 열리면서 조상님들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 찾아온다고 믿고 있어. 그래서 전통에 따르면 절 일곱 군데를 찾아가 조상님들을 위해 음식을 공양하고 범문을 들어야 해. 또한 새벽 4시경에 절 바닥에 주먹밥을 뿌리는 '버 바이 뵐' 의식을 치르는데 이 역시 지옥에서 1년 내내 굶은 조상님들께 밥을 드리기 위한 방법이야.



필리핀의 '만성절'

필리핀에도 한국의 추석과 같은 만성절이 있어. 필리핀의 만성절은 11월 1~2일이며 모두가 함께 모이는 계기를 마련해줘. 고향을 방문하고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고 연을 날리는 전통놀이를 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풍습으로 추석을 보내. 다른 점은 꽃과 촛불로 묘지를 장식하며 촛불과 함께 묘지에서 밤을 새우며 대화를 나눈다는 거야. 어린이들은 초에서 떨어지는 촛농을 모아 찰흙처럼 만드는 놀이를 즐겨. 찹쌀로 만든 케이크와 바나나 잎에 싸인 찹쌀, 코코넛, 설탕 등을 넣고 찐 전통음식 수만을 먹으며 가족 간 화합을 다지.



미국의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명절을 지내. 17세기 초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둔 후 이를 기념한 데서 유래했어.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도 쉬어 4일간의 연휴를 즐기는데 대개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만찬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 추수감사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풍성한 저녁 식탁이야. 구운 칠면조 요리를 필두로 크랜베리 소스를 곁들인 감자, 호박파이 등 다양한 음식이 저녁상에 오르는데, 칠면조는 무게가 닭의 10배 정도 되는 큰 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풍족하게 나눠 먹을 수 있어. 가족이 함께 프로미식축구경기를 시청하는 것은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이야. 쩡투를 먹기도 해.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

러시아의 추석에 해당하는 날은 '성 드미트리 토요일'이야.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매년 11월 8일 직전의 마지막 토요일이며 수확의 대한 감사와 가족의 화목을 기원해. 이날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과 모여 햇곡식, 햇과일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조상에게 성묘하지.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에서 '보드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성 드미트리 토요일에는 햇곡식으로 만든 보드카를 나눠 먹고, 새들

에게도 곡식을 모기로 나눠주는 풍습이 있어. 당시 남부를 흐르는 돈강 유역에서 몽골군을 대파한 드미트리 돈스크공이 11월 8일 전사자를 추모하는 모임을 한 것에서 유래했어.

NO.1 PROFESSIONAL
가장 빨리 '한국대표 명장'이 되는 곳!



교육부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 0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연구원(IPS)주관
**2018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대학실무교육 특성화부문**
- 02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19년도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공동훈련센터 선정**
- 03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선정(2017~2021)
- 04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18년 K-Move 스쿨 선정